

후반기 승률 2할대, 건잡을 수 없는 키움의 추락

1위 노렸던 키움, 5월 19일 이후 3개월 만에 3위 밖 이탈
최대 무기였던 마운드의 배신... 가을야구 진출은 확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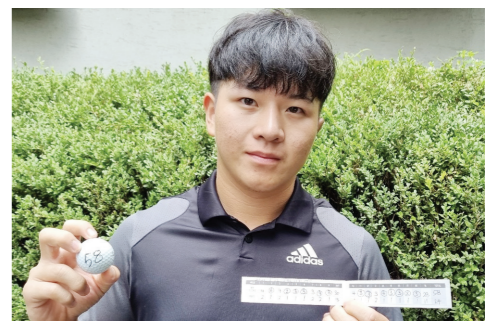
키움 히어로즈가 올스타 브레이크를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팀이 됐다. 한때 1위를 꿈꿨던 이들은 4위마저 격정해야 하는 끔찍한 입장에 처했다. 키움은 지난 23일 KIA 타이거즈와의 홈 경기에서 3-12로 대패했다. 연패가 6경기로 늘어난 키움(61승2무49패)은 3위 KT 위즈(60승2무47패)에 0.5경기 뒤진 4위로 내려앉았다. 키움이 3위 밖으로 이탈한 것은 5월19일 이후 3개월 만이다. 보고도 믿기 어려운 추락이다. 전반기 종료 시점 키움과 4위 KT의 승차는 8경기였다. 두 팀이 나란히 25경기씩 치르는 동안 크게만 느껴졌던 격차가 소멸된 것을 넘어 뒤집힌 것이다. 키움의 후반기 승률이 0.292(7승1무17패)까지 내려앉은 여파다. 문제는 역시 마운드다. 전반기 키움의 투수진은 선전의 최대 공신으로 꼽혔다. 특히 불펜진은 너나 할 것 없는 호투로 경합 부족이라는 우려를 완전히 지웠다. 웬만하면 불펜 투수 1명이 이닝 전체를 마무리 한다는 흥원기 감독의 '이닝 책임제'는 관리

와 성적을 모두 잡는 묘수로 여겨졌다. 견고하게만 여겨졌던 마운드는 후반기 들어 곳곳에서 과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선발진은 안우진(1승2패 평균자책점 2.95 이하 후반기 기록)과 에릭 요키시(1승2패 평균자책점 2.41)를 제외하면 마땅한 자원이 눈에 띄지 않는다. 최윤희는 2패, 평균자책점 5.06으로 고전하다가 끝판 통증으로 1군에서 빠졌고, 한현희(1패 평균자책점 12.91)와 정찬현(1패 평균자책점 9.45)은 부진으로 2군행을 통보 받았다. 경기 중후반을 책임져야 할 계투진은 더욱 심각하다. 전반기 4.20이던 불펜 평균자책점은 후반기 7.35까지 뛰어올랐다. 김태훈(평균자책점 6.35), 문성현(평균자책점 11.57), 이시호(평균자책점 10.80), 양현(평균자책점 10.38) 등 나오는 투수들마다 타자들에게 혼쭐나기 일쑤다. 가장 구위가 빠른 김재용(4홀드 4세이브·평균자책점 2.89)이 마무리로 전환하면서 8회는 큰 구멍이 뚫렸다. 재정비를 위한 투수들의 잦은 2군행은 아직까지 득보다 실이 많이 보인



다. 전반기(타율 0.247)와 후반기(타율 0.252)가 별반 차이 없는 타선의 기적적인 반응이 없다면 결국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요소는 투수들의 호투뿐이다. 3위를 내주긴 했지만 키움의 포스트시즌 진출을 우려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기록적인 연패와 연승이 맞물리지 않는 한 6위 롯데 자이

언츠(49승4무58패)에 10.5경기나 앞선 키움의 가을야구는 확정적이다. 2위 싸움이 어렵다면 이제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정비가 치중하는 것도 키움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거듭된 연패로 선수들의 떨어진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한다. 현 상태라면 포스트시즌에 나서더라도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



한국 골프 최초 '꿈의 58타' KPGA 스피릿투어 허성훈 16회 대회 예선전에서 13언더파

허성훈(19·중앙대)이 KPGA 스피릿투어 16회 대회 예선전에서 '꿈의 58타'를 작성했다. 허성훈은 지난 22일 전북 군산 군산CC 전주-익산 코스(파71)에서 열린 KPGA 스피릿투어 16회 대회 지역 예선 A조 경기에서 13언더파 58타를 적어냈다. 허성훈은 보기 없이 버디만 13개로 대업을 달성했다. 국내 대회에서 58타나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예선전 결과이기에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진 않는다. 스피릿투어의 18홀 최저타수는 2019년 17회 대회 1라운드에서 한재민이 작성한 60타다. KPGA 코리아투어의 18홀 최저타수 역시 60타로 2017년 9월 이승택과 11월 이형준이 만들어냈다. 허성훈은 전반기 9개월에서 버디 6개로 힘을 냈다. 좋은 기운은 후반에도 이어졌다. 11번과 12번홀 연거푸 버디를 기록한 허성훈은 14번홀부터 마지막 홀까지 5연속 버디로 '꿈의 58타'를 완성했다. 허성훈은 24일 KPGA를 통해 "아직도 얼떨떨하다. 홀마다 그런 경사가 쉽게 파악됐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웃었다. "스코어를 계속 줄이는 상황에서도 들뜨지 않았다. 경기가 끝난 뒤 스코어 카드를 자세하게 보고 나서야 58타를 쳤다는 것을 알았다"는 허성훈은 "집중력이 최고로 높았던 하루였다. 공식 기록으로 집계되지 않는 것은 나를 아쉽다"고 말했다. 허성훈 포함 약 130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스피릿투어 16회 대회는 다음 달 5일부터 양일간 군산CC에서 개최된다.

2002 한일월드컵 우승한 히바우두 "한국, 이번에도 4강 갈 것"

FIFA 월드컵 트로피 투어 홍보대사 자격 참석... 브라질 우승 가능성에는 "다른 나라들 견제 심할 것"

2002 한일월드컵에서 우승했던 브라질 축구 레전드 히바우두(60)가 한국이 20년 만에 4강 신화를 재현할 것이라고 응원했다. 히바우두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트로피 투어에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20년 전 한일월드컵에서 브라질 우승에 앞장섰던 히바우두는 "월드컵 트로피를 다시 만나 기쁘다. 월드컵은 축구를 하는 모든 이들의 꿈이다. 그걸 이뤄 행복했다. 홍보대사로 월드컵 트로피를 눈앞에서 다시 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우승했는데, 당시 한국도 4강에 가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있을 거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표팀에 조언을 부탁하자 히바우두는 "조언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한국은 굉장히 좋은 감독과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2002년 영광을 다시 이를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브라질의 통산 6번째 우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브라질이 이번에 우승하면 좋겠지만,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브라질 선수들은 항상 준비돼 있지만, 다른 나라들의 견제가 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히바우두는 브라질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힌다. FC바르셀로나(스페인), AC밀란(이탈리아) 등을 포함해 프로 통산 813경기에서 377골을 기록했고, 브라질 대표로도 A매치 74경기에서 35골을 터트렸다. 뉴시스



프로축구 성남FC 김남일 감독, 성적부진 사퇴

4승6무17패 머물며 12개 구단 중 최하위... 11위와 승점 8점차
프로축구 K리그1(1부) 성남FC의 김남일(45) 감독이 성적 부진에 책임을 통감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성남 구단 관계자는 24일 "김남일 감독이 사퇴 의사를 전해왔다.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성남은 4승6무17패(승점 18)로 12개 구단 중 최하위에 머물러 강등 위기에 몰렸다. 11위 김천 상무(승점 26)와 승점 차도 8이다. 지난달 30일 인천 유나이티드전(3-1), 이달 2일 제주 유나이티드전(2-1)에서 2연승을 달리며 반등하는 듯 했지만 이후 내리 3패를 당했다. 2019년 12월 성남 지휘봉을 잡은 김 감독은 이번이 세 번째 시즌이다. 2020시즌과 지난 시즌 10위로 K리그1 잔류에 성공했지만 이번 시즌 부진이 길어지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진 최하위로 추락했다. 김 감독은 앞서 시즌 초반에도 구단에 물러날 뜻을 밝혔지만 적극적인 만류로 팀을 이끌 어왔다. 성남 구단은 최근 그라운드 밖 사정 때문에 뒤숭숭하다. 구단주인 신상진 성남시장이 언론을 통해 구단이 '대기업 후원금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점을 언급하며 매각 의사를 드러냈기 때

문이다. 성적 부진, 감독 사퇴, 구단 매각설까지 겹친 성남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2 완도 장보고배 전남 여성가족 배드민턴 대회 성료

전남 지역 총 700개 팀, 1800여 명 참가
단체전 강진 1팀 우승, 고흥 1팀 준우승

완도군에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축제인 '2022 완도 장보고배 전남 여성가족 페스티벌 배드민턴 대회'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청해진스포츠허브 등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완도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남배드민턴협회와 완도군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남 지역 총 700개 팀, 1,800여 명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대거 참가했다. 경기 종목은 단체전, 혼합 복식, 여자 복식으로 진행됐으며, 단체전 1위는 강진 1팀, 2위는 고흥 1팀, 3위 무안 M2B, 4위 강진 2팀이 차지했다. 혼합 복식에서는 40대 S급 장흥(문영화, 구



인순), A급 목포/무안(윤민, 김일호), C급 광양/완도(전종진, 김현숙) 등이 순위에 이름을 올

렸다. 이어 복식에서는 30대 신인부 무안(정유나, 이주연), 30대 S급 무안(이승아, 박선희), 40대 A급 여수(박미자, 강혜경)·D급 완도(방지영, 서향), 50대 A급 무안/장흥(차미순, 박미)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봉사 정신으로 배드민턴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한 최미경, 임효정 전라남도배드민턴협회 여성 이사과 김유진 완도군배드민턴협회 재무팀장이 전라남도배드민턴협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지난 19일 개관한 완도 최대 규모의 체육 시설인 청해진 스포츠센터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내년에 설군 이래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제62회 전남체전과 제31회 전남장애인체전이 개최되므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 및 가족, 관계자 등 약 2,000여 명이 완도군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고진영의 신념 "비거리보다 더 중요한 건 파세이브"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 랭킹에서 고진영을 찾으려면 페이지를 한참 뒤로 넘겨야 한다. 고진영의 이름은 100위를 훌쩍 넘어 115위(250.822야드)에 랭크돼 있다. 이 부문 1위 비앙카 파그단가난(필리핀·평균 276.470야드)과 30야드 가까이 차이가 난다. 부동의 세계랭킹 1위인 고진영과 어울리지 않는 순위이지만, 정작 본인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고진영은 24일(한국시간) CP여자오픈 개막을 앞두고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드라이버 비거리가 중요하지만 내 생각에 더 중요한 것은 파를 세이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멀리 보내면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정확도가 스코어를 좌우한다는 의미다. 고진영은 "드라이버 거리를 늘리려고 열심히 연습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골프를 하는 내내 늘리려고 연습하겠지만, 거리를 늘려다보니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많이 느꼈다"면서 "그래서 지금하는 스윙을 최대한 유지하고, 몸을 탄탄하게 만들어 거리를 늘리고 싶다"고 소개했다. 이어 "거리(순위)가 다른 것들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세계랭킹 1위를 했다. 나보다 거리가 안 나가는 선수들도 있었지만 세계랭킹 1위를 한 선수들이 많다"면서 "거리가 중요한 것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목매고 싶지는 않다. 그것 거면 아이언이나 퍼팅 등 내가 잘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보유했다. 30주째 지키고 있는 세계 1위를 두고는 "엄청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스스로 부담을 가지려고 하진 않는다. 이 투어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랭킹 1위도 영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랭킹 1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진영은 25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의 오타와 헌트 앤드 골프클럽(파72)에서 개막하는 CP 여자 오픈에서 정상을 노린다. 2019년 8월 이 대회 정상에 오른 고진영은 2020년과 2021년 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여전히 '디펜딩 챔피언' 자격을 유지 중이다.